

웹젠노조, '게임업계 1호 파업' 보류... "국회 간담회 준비"

노조, 국회 중재 카드 받아들여
게임업계, 사측 참가여부 예의주시
웹젠 관계자 "정식 제안 오면 검토"

'게임업계 1호 파업'을 예고했던 웹젠노동조합이 국회의 중재 제안에 쟁의 행동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던 웹젠노조는 국회의 중재 제안에 우선 동의하고 쟁의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노조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중재 간담회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파업에 전면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제시한 중재카드를 받아들였다. 파업을 시작하면 중재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는 국회의 뜻에 동의했다. 우선 국회가 주최할 간담회 검토를 위해 쟁의행동은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중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현 의원실과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에서 웹젠노조와 사측에 모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웹젠 지회는 '수락'했고 사측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웹젠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지만 국회의 중재제안에 쟁의행동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

/웹젠지회

웹젠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의 제안도 있었지만 우선 앞서 두 의원실의 중재 제안을 수락했다"며 "국회의 중재는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수락한 것은 대화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앞서 의원실의 중재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 웹젠노조 측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건데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노사간의 갈등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원실은 간담회 일정까지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간담회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웹젠노조와 IT위

원회, 의원실은 2일 예정된 회의에서 향후 계획과 간담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웹젠 관계자는 "정식으로 간담회 제안이 오면 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젠의 노조 파업이 산업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는 게임업계들도 국회의 중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측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간담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웹젠이 파업을 하면 게임업계 최초 파업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번져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중재 제안은 '신의 한수'였다. 다

만, 사측도 이를 동의하고 수락해야 입장이 전달돼 오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간담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웹젠노조의 파업 예고는 게임업계에서 첫 파업이며 지난달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2.8%의 투표율 및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최종 결정했다.

웹젠노조는 사측에 '연봉 일괄 10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웹젠노조는 올해 3월 평균 16%의 연봉 인상, 일시금 200만원이라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10% 인상 및 인사등급 B등급 이상 직원 대상 2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넥슨

26일 '프로젝트 D' 사전예약

넥슨은 신작 PC 온라인 3인칭 슈팅 게임 '프로젝트 D'의 스팀 글로벌 테스트를 오는 6월9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달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달 29일 '프로젝트 D'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넥슨은 스팀 글로벌 테스트 일정 공개와 함께 높은 파괴력을 지닌 반자동 저격총 'M82'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누적 게임 플레이 10만 이하의 초심자를 위해 개선된 매칭 시스템도 공개했다.

넥슨은 5월 2일 오후 12시까지 '프로젝트 D'의 4월 정기 테스트도 실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일 저녁 개발진과 함께 플레이하는 '개발자를 이겨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위메이드

'오딘' 개발사 주식 일부 매각

위메이드가 오딘을 개발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

위메이드는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주식 2만2599주를 424억8562만원에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식 처분으로 위메이드가 보유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지분은 7.22%에서 4.18%(주식수 3만979주)로 감소한다. 처분 목적은 공동매도권 행사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다.

처분금액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총 12개월의 성과를 기반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결정된 선금금 약 425억원을 기준으로 공시했으며, 총 처분금액은 확정시 공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SKB

'오늘의 학습' 성장세 뚜렷

SK브로드밴드는 하루 30분, TV만 봐도 아이 스스로 홈스쿨링이 가능한 맞춤형 키즈 서비스 '오늘의 학습' 누적 시청건수가 300만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Btv 캠퍼스 '오늘의 학습'은 국내 IPTV 최초로 1세부터 13세까지 연령별·수준별 일일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출시했다. 부모가 신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1만여 편의 콘텐츠를 홈스쿨링 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커리큘럼을 통해 매일 캠퍼스 첫 화면에서 통합 추천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오늘의 학습'은 현재까지 누적 시청건수가 300만, 분기별 시청건수가 400%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이용자가 3.3배 늘었고, 월 평균 학습건수도 2배 증가해 아이의 일일 학습습관 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채윤정 기자

제주항공

인천~괘 노선 증편 운항

제주항공이 이달부터 인천~괘 노선 운항을 늘린다.

제주항공은 인천~괘 노선 운항횟수를 주 2회에서 주 4회로 늘려 증편 운항한다고 1일 밝혔다.

운항시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에 출발한다. 괘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해 저녁 7시50분 인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항공의 인천~괘 노선 증편 운항으로 괘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이 여행 일정 수립에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윤 기자

에어부산

부산~괘 노선 재운항

에어부산은 부산발 괘행 BX614편을 시작으로 부산~괘 노선의 본격적인 재운항에 나선다.

1일 에어부산은 부산~괘 노선을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 토요일 주 2회 운항한다. 부산~괘 노선 운항편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5분에 출발해 현지공항에 오후 1시5분 도착, 현지공항에서는 오후 3시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저녁 6시3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 걸리며 220석 규모의 신형 항공기인 A321neo를 투입한다.

한편, 괘 입국 시 승객은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출발 1일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국 질병통제센터 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KT, AI 관제 솔루션 '아이온' 상용화

장애 발생 요소 주기적 사전 점검 전문가 없이도 기업특화망 운영

KT가 기업특화망 인공지능(AI) 관제 솔루션 'AiON'(아이온)의 개발을 완료하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대룡테크노 빌딩의 통신 인프라 운영에 시범 적용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KT의 '아이온'은 기업특화망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이온'의 핵심 구성 요소는 KT의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을 통해 검증된 AI와 자동화(SDN) 기술이다.

AI는 기업특화망에 연동된 수 백~수 천대의 장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기록과 트래픽, 성능 데이터 등 서비스



KT 융합기술원 연구원들이 '아이온'을 관제 기록을 확인하고, 기업특화망의 실시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KT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치 방법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SDN의 경우 기업특화망에 구축된 장비와 연결정보를 자동으로 탐색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장

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주기적으로 사전 점검한다. 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도 제공해 명령어를 다수의 장비에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아이온'을 활용하면 빌딩 통신 인프라를 비롯한 기업특화망을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전문가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특화망 운영이 가능해지며 기존에는 수십 분이 소요됐던 장애 원인 분석 작업을 '아이온'을 통해서 수 분 이내에 끝낼 수 있다.

KT는 이번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5G 특화망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관제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KT-신한금융 금융사기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

금융범죄 대응안 연구 등 MOU 체결

신한금융그룹이 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한금융의 금융사기범죄 예방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KT와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9월부터 손을 잡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KT는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신한금융그룹과 '불법 사금융 및 보이 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 탐지 및 예방

기술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빅데이터 기반 금융범죄 대응방안 연구 ▲금융사기 조기탐지 및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신한금융의 금융사기 대응 시스템 고도화 ▲App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사기범죄 예방을



신한은행 박현주 부행장(왼쪽), KT AI/DX융합사업부문 송재호 부사장(가운데), 신한금융그룹 황호민 부사장(오른쪽)이 MOU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